

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개회...안전처리 후 사업장 방문

시민 고통분담 위해 의정연수비 반납 결정,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도 강조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가 지난 18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일정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총 15곳의 사업장을 방문했다. 일정은 북부, 남부, 도서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하루씩 진행됐으며,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 25일에는 제2차 상임위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26일 제1차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종합심사 및 조정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225회 임시회를 마무리 한다.

박금순 의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다”며 “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고통분담과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의정연수비 반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수 있어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대응에 발맞춰 시의회도 집행부와 한마음이 되어 코로나19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26회 제1차 정례회는 2020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의회, 여성농가 찾아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지난달 28일 주산면 신구리에 있는 딸기 재배 여성 농가를 찾아 봄철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에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이 더욱 심화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일손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명은 약 2,400㎡의 딸기재배 하우스에서 딸기 런너 제거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보령시의회는 농가에 부담되지 않

도록 작업 도구, 간식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작업 간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거리두기를 유지했다.

박금순 의장은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면 농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 조금이나마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일손 돕기를 계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나누며 해결하는 보령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당신은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지원	학생·청소년상담 지원	서민 금융·법률 지원	취업 지원	복지·생계 지원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청소년상담 1388 (전화상담/사이버상담/문자상담)	서민금융콜센터 1397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청소년모바일상담 다들여줄게 (카카오톡/페이스북/앱/1661-5004 문자상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복지로 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